

“예술지원 · 문화복지 포용력 넓혀야”

전북문화관광재단, 시무식 개최... 청년예술인 활동 격려 · 최적의 사업 기획 등 강조

“예술지원과 문화복지에 포용력을 넓혀주시십시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이사는 2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화예술 창작과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청년예술인의 다양한 활동을 격려하고, 장애와 비장애가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이 현장의 매개가 돼 다양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만족도를 분석해 최적의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관광시장이 활력을 찾는 지금 이 시기에 ‘차유’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역사’ 콘텐츠 개발·보완해 14개 시군 구석구석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경운 대표이사는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해”라면서 “재단은 특별한 전복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 무게를 더하고 문화관광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도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며, 모두가 혼연일체로 달려준다면 재단은 지금이 도약의 최적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명품 창극공연 성료

남원시립국악단은 지난 연말 공연한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가 원작인 창작 창극 ‘운명의 주사위’ 기획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원작 ‘만복사 저포기’에서는 주인공들이 저

포놀이를 통해 인간과 귀신으로 만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이미 이승에서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재창조한 공연으로 이를 통해 사랑의 약속을 위해 죽음의 강을 건너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시켜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환상적인 사랑 이야기로 만들어 냈다.

남원시립국악단의 상설공연 ‘남원창극’은 2013년 시작하여 올해 12년을 맞았으며 총공연 횟수 170여 회, 누적 관객 수는 약 6만여명으로 집계, 춘향전, 흥부전, 오늘이 오늘이소서 등 남원의 문화역사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9작품을 공연해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유력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야간 상설공연으로 남원이 체류형 관광지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남원시립국악단의 상설공연 ‘남원창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100’에 선정되었으며,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민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알고자 지역 문화 명소·콘텐츠·명인 등 총 100개를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립국악단의 남원창극은 이 중 지역문화 콘텐츠 부문 40선에 포함되어 진주 유등축제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립국악단은 지난 연말 공연한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가 원작인 창작 창극 ‘운명의 주사위’ 기획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국립민속국악원, 전통 예술 단체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2월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제6회 판놀이 특별창극과 함께 할 공연 작품을 보유한 전통 예술 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창극, 소리극, 음악극, 창작

극, 무용극, 연희극, 어린이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연 시간은 60~90분 내외로 지정되어 있다.

최종 선정 작품은 4개 내외로 공연 일정은 5월 25일, 5월 29일, 6월 1일, 6월 8일로 예정되

어 있으며,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560석)과 예음헌(88석)에서 공연된다.

심사는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결과발표는 2월 1일에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및 개별 통보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전화(063-620-2323)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세계 양서 · 파충류 특별전 ‘용과 함께’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서 2월 12일까지 개최

남원시가 2024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준비한 세계 양서·파충류 특별기획전 ‘용(龍)과 함께’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선보였으며, 운영 기간은 오는 2월 12일까지로 전 연령대 입장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지난 3일간 1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이번 특별기획전은 예로부터 남원시와 밀접한 관계였던 ‘용(龍)’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로, 용의 후예들이라 불리며 세계 각국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파충류를 포함한 동물 생태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전시 생활로는 ‘바닷속 귀염둥이 해마’, ‘턱수염이 매력적인 비어디 드래곤’, ‘사바나의 용 목도리도마뱀’ 등을 비롯해 20여 종 200여 마리의 다양하고 신비로운 동물 친구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물력 4월 초파일이면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닐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을 보유한 주천면의 대표적 명소인 구룡계곡의 석각 탁본도 함께 전시되어 특별기획전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의주 낚기 게임’,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청룡 디폼블럭 체험’, 또한 용과 함께하는 ‘에어발룬 포토존’ 등 갑진년 푸른 용과 관련된 다양



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전시관 주변에는 에코루지·캠핑장 숙박시설이 조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임시 개관 중인 생태테마체험시설 ‘에코큐브’에서는 형형색색의 특이한 모습과 재미있는 생태를 가진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산림복지과(063-620-5751~57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형유산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

국립무형유산원, 우수 이수자에 월 50만원씩 신규 지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전승활동 장려금(월 5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활동에 필요한 전승교육지원금이 매달 지급됐으나, 전체 전승자의 95%(약 7천여 명)를 차지하는 이수자는 별도의 지원금 없이 전승활동에만 매진해 왔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활동 실적(3년 이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 중 국립무형유산원의 검토를 거쳐 1월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올해 1

월 말부터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되는 전승교육지원금도 상향됐다.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월 550~5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지원금을 받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063-280-14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가치가 담겨진 소중한 국가무형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승함과 더불어, 미래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 갈 수 있도록 전승지원 확충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